



인터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법규제도팀 대리 김지성

1. 현 직장 및 하시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기획조정본부 법규제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기업이자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신용협동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지역과 조합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한 연합체로서 신용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신용협동조합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국내 10 위권의 기관투자자로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증권사들의 큰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법규제도팀의 업무는 중앙회에서 진행하는 소송을 관리하는 소송관리업무, 중앙회의 모든 규정을 심사하는 규정심사 업무,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하는 대외업무, 중앙회의 정관개정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네 가지 업무는 모두 법학전공자들이 가장 밀접하게 수행하기에 유리한 업무입니다. 하나씩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관리 업무입니다. 중앙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소송을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진행할 로펌의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필요한 소송자료를 해당 소송 개개인에게 제공하고, 소송내역과 소송 자료의 관리를 진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법규제도팀에 속하여 일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이나 감독에 따른 징계소송,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규정심사 업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의 시스템

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내부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법시간에 배우는 회사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인 정관, 이사회에서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운영규정, 조합을 지도하고 감독하기 위한 감독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규정이 법과 규제의 틀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의 담당 부서들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의 대한 내용을 제출하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내부 규정과의 충돌은 없는지, 조합원들과 고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심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수정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외업무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조금은 특수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협과 중앙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대외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혹은 국회에 우리 신협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 행정규칙의 개정을 건의하는 업무입니다. 실제로 법규제도팀에서 수행하는 업무중에서는 대외업무가 가장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업무입니다. 기존에 신협이나 중앙회가 받던 규제들이 철폐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네 번째는 정관개정입니다. 법인의 가장 중요한 규정이자 근본적인 규칙인 정관을 개정하는 업무를 저희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관의 규제를 위해서는 총회를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주 개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여 금융위원회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전공을 살려 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취업을 위해 어떠한 준비과정을 거치나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신협중앙회를 목표로 하여 '무조건 이 회사에 입사해야겠다'는 태도로 입사전략을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입사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입사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을 별도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해당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필기시험 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입사를 준비할 당시에는 스테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하지 않았지만 면접을 준비할 때는 기업체의 정보를 파악하고 또 제 스스로 긴장감을 없애기 위해 서류합격 이후 만들어지는 해당 기업의 면접스터디를 참여했었습니다. 또한 면접의 경우 자문자답하는 연습을 자주하면서 제 스스로 했던 경험이 면접 질문에 대한 답에 많이 녹아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일 때 면접을 자주 보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짜피 또 떨어질거 내 스스로의 모습을 면접관들에게 솔직하게 보여주자" 그러다보니 점점 담담하게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면접관들 앞에서 많이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취업준비를 하시는 것과 제가 취업준비를 할 때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제 경험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몇 가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류전형의 통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서류를 접수할 때 쓰는 자기소개서에서 소위 말하는 '복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회사에 입사를 준비하다보면 자기소개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비슷한 경험이라도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을 연구하여 그에 걸맞게 풀어서 서술하였고, 또 기업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분석하여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자기소개서를 쓰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류전형 합격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기업의 인재상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인재상과 근접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뜻깊고 의미있는 경험이었어도 지원하려는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쓰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 제가 과거에 영업직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자소서에서 썼던 시험준비과정을 좋지 않게 평가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업직무는 활동적이고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험준비과정은 그와 상반되는 경험이라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의 뜻깊은 경험이 회사의 인재상에 맞지 않는다면 취업준비과정에서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 취업 준비 과정 중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취업준비과정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최대한 시간이 남는대로 봉사활동이나 인턴 등 다양한 외부활동에 지원해보는 것을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이는 법학부 전공자들의 취약점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법학부 학생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준비에 포커스를 맞추어 학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 사실상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부활동들이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취약한 것이 취업준비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시험을 준비하시다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외부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 과정에서 본인만의 스토리를 찾아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4. 현재 받고 계시는 임금이나 복지수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타 금융기관 대비 우수한 수준이고 평균 근속 기간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지금 현재 신입 직원들의 초임 연봉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팀이 아니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4천 중후반대의 초임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은행과 같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보직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서 지켜본 결과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을 보면 복지 수준이 훌륭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회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법학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국가고시를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 라는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준비할 당시에는 이 시험을 보는 것 외에는 다른길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시험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 준비를 했던 경향도 조금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취업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그만두고 늦게 준비하기 시작해서 쉽지 않은 길을 걸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험 준비를 그만두고나니 그 동안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꼭 국가고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